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사업 '원활'

1,364억원 정부 지원받아 지난해까지 850억원 투입 공항로 등 4개 완료

군산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옥서면에 주한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천364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난해까지 850억원을 투입해 군산공항로, 타운로, 중앙로, 백토고개 지하차도 등 4개 사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16년 예산 총 133억원(국비 70억, 시비 63억)을 확보해 산업단지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시간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해 5월 착공한 미성~열대지간 도로개설공사에 57억원을 투입해 2018년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월 착공한 옥서면 도로개설 공사 및 소룡동 도로개설 공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중에 있는 미룡동 도로개설공사와 더불어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그 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개발에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에 대해 2006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009년 2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농어촌공사,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사업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임우순)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사업의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촌사회의 초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지속 증가함에 따라 농촌 사회의 능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0년 도입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효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농지은행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에 한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하며,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다.

지원조건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80%)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며 6억원 이하의 농지에 한해 재산세 100%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 직원이 농지연금 홍보맨으로 활동하며 잠재적 고객 유치를 위해 사업 설명 팜플렛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우순 지사장은 "농지연금사업은 어려운 농업 현실속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봉양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최적의 보장 상품이다"면서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고령농업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베이비부머 야간과정 입학식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지난 2일 본교에서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특수용접 및 보일러시공 야간과정 입학식을 실시했다.

본 과정은 베이비부머세대인 만45세 이상~65세 이하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수용접 및 보일러시공 관련 내용으로 5월 2일부터 3개월간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4기 훈련생을 맞이하는 베이비부머과정은 수업료 및 교재, 식비 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모든 비용은 국비 지원되며, 소득이 없는 교육생에게는 매월 25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플러스센터(전화 063-830-3028)로 문의 가능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중앙지구대 경찰관 음주단속

익산경찰서(경찰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출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취 음주운전 여부를 불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일 출근직후인 오전 8시30분부터 중앙지구대 회의실에서 출근한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안하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점검을 받은 한 경찰관이 "단속하던 사람이 단속을 받는 입장이 되어 보니 기분이 묘하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경찰서, 불량식품 유통 · 판매 일제점검

인터넷 통한 허위 과장광고 ·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계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오는 6월까지 4대사회악 악의적 불량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불량식품 3대 주력테마 중 하나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허위 과장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및 인증마크(바이전북상품) 무단 도용여부 등 불량식품 유통·판매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발달에 따른 식품 유통·판매량이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식품구입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과장광고나 홈페이지에 표시된 허위 인증마크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량식품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장광고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식품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전라북도에서 품질의 보증을 지원하는 바이전북상품에 대한 인증마크 무단도용 여부 및 약정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해서 홈페이지상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중국 강소성 진강시와 축구교류

익산시 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진강시(시장 주효명)의 생활 축구인들로 구성된 축구교류단이 5월 2일~5일까지 익산시를 공식 방문한다.

진강시 생활체육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된 축구교류대표단은 익산시 축구협회에서 엄선한 익산시 연합팀과 3일~4일까지 공설운동장 등지에서 세 차례의 축구시합을 갖는다. 이후 미륵사지, 왕궁리유적지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보석박물관을 둘러보며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 4일에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 대 장쑤 쑤닝의 프로 축구(The 2016 ACL)를 관람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국 진강시 축구교류단의 방문으로 양 시의 자매결연관계가 공고히 되는 것은 물론 민간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와 진강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축구, 배드민턴, 볼링 등 체육 분야와 홈스테이 프로그램, 서예, 두 도시 대표단의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자매도시로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진강시 축구교류단 방문의 답방차원에서 익산시 축구단이 진강시를 방문해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자체 설계반 편성 용역비 절감 효과 '톡톡'

군산시는 2016년 도로정비 사업 등 설계가 필요한 사업에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 용역비 절감은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건설행정에 타 시군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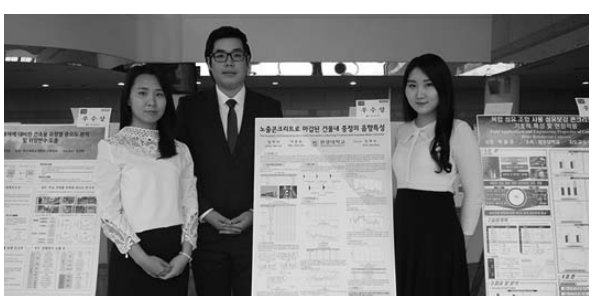
공무원 자체 설계반은 총 4개반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4월말 기준 도로정비사업 대상 105건 72억원 중 64건 49억원에 대해 자체설계를 실시해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기술직 직원들의 업무연찬 및 설계능력을 배양해 오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인 조기집행 7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설계를 추진할 것이다"며 "연말까지는 100% 추진목표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 대학원 건축학과 학생들 우수졸업논문전 입상

장희라 · 서준보 우수상 정아영 장려상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장희라(사진 왼쪽), 서준보(사진 가운데) 씨가 공동 연구한 논문이 대한건축학회 우수졸업논문전 학사부문 우수상을 받고, 지난 2월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아영(사진 오른쪽) 씨가 석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대한건축학회 우수졸업논문전은 학부 및 석사과정 중에 발표한 우수 논문을 제출받아 연구 독창성과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논문을 선정해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장희라, 서준보 씨가 건축공학과 김재수 교수의 지도로 제출한 논문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건물 내 중정의 음향특성'은 건물 중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향적 결함을 진단하고 평가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또한, 공학석사 취득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인 정아영 씨가 제출한 '음향 심리분석을 이용한 패션쇼 공연장의 음향성능 개선 및 평가'는 패션쇼 공연장의 음향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음향심리기법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신시도 일원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군산시가 토지 경계분쟁 등으로 측량을 할 수 없었던 신시도일원 471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불부합지 해소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국의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종이지적도에 작성?등록하여 공적장부로 사용해 왔으나, 종이의 특성상 훼손?마모 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왔다.

특히 신시도 일원은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 작성과 등록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들이 많아 주민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측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시는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더불어 고군산군도 국도 개설 등 활발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국비를 확보 해 올해 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유상준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